



2021 WINTER VOL. 103

INSIDE

이수인의 이중생활

내 방에서 따라하는 이지 홈 트레이닝

Young ISU

이수그룹 공채 26기 신입사원

OUTSIDE

이수 테이블

얼음바람 물리치는 제철 음식

스페셜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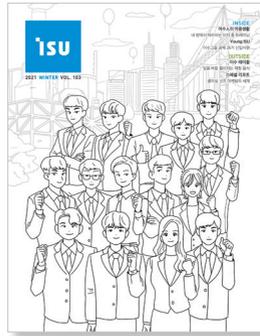
콜라보 굿즈 마케팅의 세계



Contents

01

Cover story



표지 모델

이수화학: 조현기 사원, 김하은 사원, 정지훈 사원, 서혁신 사원, 이상호 사원, 전민우 사원, 박지훈 사원, 노지웅 사원
이수건설: 박규하 사원, 오상우 사원, 전재현 사원, 김민정 사원
이수시스템: 박정환 사원, 송민수 사원
이수엑사캠: 박준범 사원

능력과 열정을 두루 갖춘 15인의 프레시맨. 이수그룹의 미래를 이끌어 갈 공채 26기 신입사원이 입사했다. 당찬 포부와 파워풀한 에너지로 뚝뚝 뭉친 그들에게서 신축년 새해의 희망이 느껴진다.

06

INSIDE

- 04 **신년사**
- 07 **Focus & News**
- 12 **리더의 책장**
김상범 회장 추천 도서 <평행우주>
- 14 **이슈를 잡아라**
ISU-사내벤처 프로젝트
- 18 **커뮤니케이션 Talk**
이수인들의 속 시원한 카운슬링
- 22 **이수인의 이중생활**
내 방에서 따라해 보는 이지 홈 트레이닝
- 26 **Young ISU**
이수그룹 공채 26기 신입사원
- 31 **이수타그램**
사진과 해시태그에 담긴 아름다운 추억들
서태석 사원(이수엑사캠 영업3팀)
표형수 사원(이수시스템 ERP사업팀)

33

OUTSIDE

- 34 **이수 테이블**
얼음 바람 물리치는 건강한 제철 음식
- 38 **스페셜 리포트**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콜라보 굿즈 마케팅의 세계
- 44 **마이레알트립**
코로나가 끝나면 가고 싶은 여행지
어디든 떠날 수 있는 방구석 여행 챌린지
- 52 **이수의 PICK**
주접이라고요? 우리에게겐 일상이랍니다!
반려인들의 특별한 보통날
- 57 **옴부즈맨**
- 58 **컬러링 테라피 및 엽서**

이수그룹 계간 사보 2021년 신년호 통권 103호
 발행일 2021년 1월 22일
 발행인 김상범
 발행처 (주)이수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84
 총괄진행 김현중 02-590-6819
 사보기자 이수화학(이정구·김태준) 이수페타시스(이준경·이난영)
 이수건설(한수진) 이수시스템(김용훈) 이수창업투자(김경문)
 이수엠지스(박예스터) 이수엑사캠(박수영) 이수엑사보드(김슬기)
 이수C&E(김현주) 이수AMC(이건우)
 제작디자인 크리스마스 기획실장 우인재, 디자이너 조현경
 인 쇄 캠프로세스

본지에 실린 글, 그림 사진 등 모든 자료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수그룹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해당 필자들의 견해이며, 이수그룹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수가족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며 이수그룹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20년을 돌아보면, COVID-19로 촉발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리 그룹은 견조한 실적을 달성하였고, 이수화학의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사업 진출, PCB부분의 탈중국화 기회를 활용한 시장확대, 앱지스의 최초 기술수출 달성, 시스템의 HR사업 국내 시장 1위 점유 등 크고 작은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반면 경제 침체의 직격탄 속 한계를 맞은 일부 회사는 구조조정 및 사업 철수라는 힘든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경영환경의 불확실성과 산업 패러다임의 급속한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되어 기존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하는 과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이수그룹의 장기적인 생존과 발전을 위해 2021년 경영 핵심과제로 '변신'과 '도약'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사업구조의 '변신'입니다.

기업의 변신이란 환경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하며 처한 상황에 따라 차별적인 전략을 통해 사업구조를 급격히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2,000대 기업 중 성공적으로 변신한 회사들의 공통점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미리 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수그룹의 사업도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감소하고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변신을 미루는 것은 우리의 생존조차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합니다. 각 사별로 일상의 평안함을 깨뜨리는 결단을 주저하지 말고 냉정히 판단하여 무엇을 버리고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빠르게 결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제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 저수익 사업 분야에서 과감히 철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축적된 자원과 역량을 고부가가치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유망한 사업 구조로의 변신을 늦지 않게 서둘러야 합니다.

둘째, 모든 부분에서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고 연속성을 뛰어 넘는 수준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룹은 그동안 꾸준한 성과를 이루어 왔으나 외형적 성장은 정체된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방식과 노력으로는 비약적인 도약을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현재의 업무방식에 대해 끊임없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존 관행 및 경직된 조직문화를 버리고 개선합시다.**

비효율적인 업무는 과감하게 제거하고, 보다 가치 있는 업무에 시간과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조직 및 회사 간 원활한 소통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경계 없는 협업'을 강화해 나갑니다. 그룹 내 각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통합하여 새롭게 재배치하고 활용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합시다. 또한 외부의 다양한 분야와 협업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적극 활용합시다.

절박한 각오로 미래의 트렌드를 읽고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핵심가치를 포착하여 빠르게 사업화하는 창의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합시다. 이를 기반으로 기존의 환경과 사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사업구조, 사업방식, 업무방식 등 모든 부분의 혁신을 통해 그룹 퀀텀점프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수가족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과감하게 변신하여 도전하고 끝까지 실행합시다. 현재 사업 분야에 얽매이지 말고 기존의 판을 깨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는 Game Changer가 되어 미래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4일

이수그룹 회장 김상범 



(주)이수

2021년 신입사원 비대면 입문과정 진행



이수그룹은 지난 1월 4일, 온라인 비대면 신입사원 입문과정을 가졌다. 2021년 신입사원으로 최종 선발된 15명은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에 맞추어 기획된 교육 과정을 온라인으로 이수했다. 한편 이수그룹은 지난해 9월 2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위한 지원서를 접수 받았으며, 서류전형 통과자를 대상으로 실무진 면접 및 신체검사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

이수화학

류승호 대표이사 포스텍 CEO 특강 진행



지난해 11월 30일, 이수화학 류승호 대표이사가 포스텍을 방문하여 CEO 특강을 실시했다. 교수진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특강에서 류승호 대표이사는 화학 및 그룹에 대한 소개와 함께 엔지니어로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본인의 경험을 공유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상호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포스텍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특강 후 이수화학 강의실 헌판식도 진행하였다.

이수페타시스

서영준 대표이사
KPCA로부터 공로패 수상



지난해 11월 24일, 이수페타시스 서영준 대표이사가 KPCA(한국전자회로산업협회)가 주최하는 2020 KPCA Show 시상식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서영준 대표이사의 열성적인 협회 활동과 회원 상호간의 협력 및 친목 도모에 대한 공을 인정받은 결과다. 협회 측은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내 전자회로 기판 산업과 협회 발전에 대한 기여가 크다”는 축사와 함께 공로패와 꽃다발을 수여했다.

이수건설

부산 대라
주공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지난해 10월 23일, 이수건설이 부산 대라 주공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이번 시공은 지하 3층~지상 27층, 공동주택 3개동 연면적 8,789여 평 규모로 전체 212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갖는 프로젝트다. 최근 각종 부동산 규제 및 수주 물량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수건설은 건설산업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수시스템

온라인 연말정산
세미나 실시



이수시스템은 지난해 12월, 온택트 시대에 맞춰 온라인 스트리밍 연말정산 세미나를 진행했다. 연말정산 세미나는 개정세법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이수시스템의 연말정산시스템 개선사항에 대한 안내가 주요 내용이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이수그룹 사옥에서 촬영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수앱지스

러시아 파마신테즈와
ISU305 기술수출
계약 체결



이수앱지스가 지난해 11월 24일, 러시아 제약사인 파마신테즈와 러시아 및 CIS 지역을 대상으로 한 ISU305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ISU305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등의 치료에 쓰이는 미국 알렉시온의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다. 이수앱지스는 이번 계약을 바탕으로 ISU305에 대한 타 지역의 기술수출을 진행하고, 향후 다른 파이프라인의 러시아 진출을 위해 파마신테즈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수창업투자

신규펀드 결성 및
Korea VC Awards 2020
최우수 심사역 수상



이수창업투자는 지난해 10월 30일 'ISU-글로벌콘텐츠코리아펀드'(약정 총액 152억원)와 11월 9일 'ISU-힘내라경북애그리푸드투자조합'(약정 총액 110억원)의 결성총회를 개최했다. 더불어 지난해 12월 3일 온택트 행사로 진행된 제11회 'Korea VC Awards 2020'에서 손민영 부장이 문화 부문 최우수 심사역에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수엑사켐

2021년
新 성장동력 모색



이수엑사켐은 지난해 11월 인피니움과의 공급계약 및 업무 협약식을 마쳤다. 인피니움은, 엑슨모빌과 쉘의 JV(joint venture·합작투자회사)로서, 글로벌 선박용 첨가제 제조업체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이수엑사켐은, 중국의 CNPC와도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CNPC와는 지난 2019년 거래 확대 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이번 MOU를 통해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수엑사켐

겨울 추위 녹이는
훈훈한 연탄 나눔
행사



이수엑사켐은 지난해 연말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지난해 코로나19와 겨울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기증된 연탄의 작은 불씨가 추위를 녹이는 훈훈한 선물이 될 것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증행사로 대체되었으나 기부를 통해 사회에 전해지는 온정은 여전히 따뜻했다.

이수AMC

오피스텔 및
상가신축공사
도급관리용역 수주



이수AMC는 지난해 10월,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상가에 대한 도급관리용역을 수주했다.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임대용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10층, 지하 2층의 규모이며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근린생활 및 업무시설인 답십리 카운티에비뉴 상가는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다. 이번 계약으로 인해 향후 이수AMC의 사업방향 결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SF영화보다 더 흥미로운 우주 이야기 평행우주 Parallel Worlds

저 자 미치오 카쿠

출판사 김영사



“

수조 년 후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인간은 미래를 내다보는 이러한 선견지명을 통해 지금까지 생존하고 진보해오지 않았던가. 이 책은 먼 훗날 이 우주가 소멸하게 되었을 때, 인류의 생존을 위한 대안으로 평행우주로의 탈출을 제시하고 있다. 이론물리학계에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학자인 저자는 복잡한 과학 개념을 SF 소설이나 영화를 예로 들어가며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다.

”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결국 소멸하게 될 것이다.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시간여행이나 공간이동을 통해 다른 우주로 탈출할 수 있을까? 이 책은 다른 우주로 탈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탈출을 원한다면 우선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평행우주’의 개념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다.

당신이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갔다가 당신과 A가 결혼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현재로 돌아왔다. 그런데 당신은 A와의 결혼을 원치 않았기에 B와 결혼했다. 그렇다면 당신이 보고 온 미래는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 이러한 모순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바로 ‘평행우주’다. 학술적인 의미에서 이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휴 에버렛이지만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미국의 SF 작가 로버트 하인라인이 자신의 소설에 평행우주를 등장시키고 부터다.

총 3부로 이루어진 <평행우주>의 1부와 2부는 우주론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독자들도 기존의 우주론 연구 성과와 역사를 쉽게 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여진 책이다. 또한 이 책을 통해 우주론의 최첨단에서 연구하고 있는 최고의 학자들이 최근 어떤 분야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개괄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저자는 우주론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을 위하여 책 말미에 우주론의 모든 기본개념을 쉽게 풀어 쓴 용어해설도 덧붙였다.

3부에서는 우주 종말의 과정과 우주를 탈출하는 방법을 11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며 우주의 궁극적인 의미를 논하고 있다. 저자는 그 속에서 우리 인류가 우주 속에 존재해야 할 의미를 창조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우주에서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만든다.

※ 본 코너 추천도서에는 향후 이수그룹 리딩센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와 아이디어로 혁신을 꿈꾸다

ISU-사내벤처 프로젝트

이수그룹 ISU-사내벤처 프로젝트가 지난해 말 시작되었다. 오는 3월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될 사내 벤처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돌파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아이템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는 제도다. 내부는 물론 외부 인력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 창업 팀을 운영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이수그룹에 또 다른 혁신의 바람을 일으킬 전망이다.



창조적 아이디어와 첨단기술의 황금비 '벤처'

벤처기업이란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모험적 사업에 도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보통 창조적인 아이디어나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중소기업 혹은 소규모 기업들이 이에 해당된다. 요즘에는 벤처와 스타트업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타트업의 경우 혁신적인 기술 혹은 아이디어를 보유하지만 자금력이 매우 부족한 인터넷 기반 고위험·고성장 기업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이수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사내 벤처'라는 또 다른 갈래가 존재한다. 사내 벤처란 기업 구성원의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 및 개발한 뒤 기업의 자본을 투자해 사업화하는 방식으로 스타트업의 장점인 민첩함에 기업의 자본력 및 사업 인프라, 네트워크 등을 더해 강점을 극대화한 사업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사내 벤처는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한다. 기존에 보유한 우수 인력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활용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사업 기회를 포착해 신규 사업 군을 재빨리 확보함으로써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조직문화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다. 개인에게는 주어진 업무 외에 자기 주도적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사업이 성공했을 때 기업 내에서 본인의 위상이 높아진다. 실패하더라도 해당 사업을 수행했다는 커리어가 남게 되어 향후 또 다른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네이버에서 당근마켓까지, 사내 벤처의 역사

우리나라 사내 벤처의 역사는 벌써 20년이 넘었다. 삼성 SDS의 사내 벤처로 출발한 '네이버', 옛 LG데이콤의 사내 벤처였던 '인터파크' 그리고 SK의 사내 벤처 'SK엔카'는 사내 벤처로 시작해 성공

NAVER

INTERPARK

당근마켓





신화를 써 내려간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힌다. 이들 기업의 성공 비결은 사내 벤처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빠른 의사결정에 모기업의 안정적인 자본력이라는 든든한 밑받침이 더해지자 사내 벤처는 강한 추진력을 얻어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세 곳의 사내 벤처 중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네이버를 예로 들어보자. 이해진(現 네이버 글로벌 자책임자, 라인 회장) 회장은 1999년 네이버 창업 당시 삼성SDS 사내 벤처 제도의 덕을 톡톡히 본 장본인이다. 1997년 네이버포트라라는 벤처 사업팀을 출범시켰고 2년 뒤에는 네이버컴으로 독립하기에 이른다. 당시 대한민국의 인터넷 열풍에 힘입어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네이

버컴은 국내 IT 벤처의 신화로 자리 잡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네이버는 포털을 기반으로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쇼핑, 메신저 등 다방면으로 뻗어나갔다. 그 결과 네이버가 사내 벤처의 시조세 역할을 했으며, 최근에는 당근마켓과 청소년연구소 등이 사내 벤처 대열에 합류했다. 요즘 중고거래 플랫폼 중 가장 잘나가는 당근마켓은 성남시 판교에 위치하는 카카오의 사내 게시판에서 시작했다. 바로 이 사내 중고 거래 게시판에 대해 판교 주민들로부터 관심과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당근마켓은 여러 지역으로 확장하게 된다. 현재 당근마켓은 월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중고나라를 추월했으며 지난해에는 480억 원 가량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이수그룹 사내벤처 1기 모집

“스티브잡스의 애플도 작은 Garage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벤처 공간이었던 실제 차고 모습 (출처: Palo Alto)”

애플의 신화도 작은 차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당신의 작은 가능성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가슴 한 편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당신의 그 뜨거운 잠재력을 기다립니다.

[이수그룹 사내벤처 1기 모집] "Change The Rule"

모집기간: 2020.11.23 ~ 12.22 / 채용유형: 우수 풀타임 누구나 / 사업분야: 개발/영업 / 접수문의: shoseo@isu.co.kr
 지원내용: 입계 전담가 교육 / 개발자 지원 / RA (Research Assistant) 지원 / 프리-워킹타임 기회 제공
 사내벤처 제도? 기업구성원의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육성, 기업의 발전을 위해 사업화 하는 것. 스타트업에 관련된 Agility를 기업에 적용함

‘Change The Rule’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제작된 이수그룹 사내벤처 1기 모집 캠페인.

이수그룹 사내벤처 1기 모집

“도전하지 마세요”

사내벤처에 도전하지 마세요. 이수의 미래와 꿈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좀 더 두근거리는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당신의 작은 변화 한 걸음을 기다립니다. 가슴 한 편에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는, 당신의 뜨거운 잠재력을 기다립니다.

[이수그룹 사내벤처 1기 모집] "Change The Rule"

• 모집기간: 2020.11.23 ~ 12.22
 • 지원유형: 이수 임직원 누구나 가능
 • 사업분야: 제한 없음
 • 접수문의: shoseo@isu.co.kr
 • 지원내용: 입계 전담가 교육 / 개발자 지원 / RA (Research Assistant) 지원 / 프리-워킹타임 기회 제공 등

이수그룹 사내 벤처 1호는?

지난해 말 내부 공모로부터 시작된 이수그룹 사내 벤처 제도는 내부 인력들로 결성된 팀뿐만 아니라 우수한 외부 창업 팀도 함께 육성하는 혁신적인 벤처 문화를 선도해 적극적인 신규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이다. 또한 선정된 팀에 대해서는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현재 그룹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의 관련 유무와는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업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과 팀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임직원이 참여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낮췄다. 팀 구성은 현업부서의 동일 팀 내 인원만 아니라면 동료와 선후배 모두 가능하며 외부인력도

영입할 수 있는 파격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선발된 임직원들에게는 오직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현업에서 배제하고 업계 전문가의 교육, 샘플 구매 등 소정의 사업 개발비 지원, 독립 사무공간 등 실질적인 사업화 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해당 기간 동안 지원 가능한 외부 정책자금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창업 패키지’와 ‘사내 벤처 육성자금’ 등이 있으며, 금번 선정된 ISU-사내벤처팀은 예비창업 패키지에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동하는 에너지와 함께 찾아올 3월,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될 ISU-사내벤처 팀은 국내외 여러 약조조건과 무한 경쟁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비즈니스 아이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이수인들의 속 시원한 카운슬링

한 해가 지나간 자리에 희망이라는 이름의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올해도 직장 혹은 사회나 가정에서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들을 명쾌하게 풀어 드립니다.
때로는 선배가, 때로는 동료와 후배가 해결해주는 알쏭달쏭한 고민들. 그들이 사이다
상담소를 찾은 사연은 무엇인지, 카운슬링 토크에 귀 기울여 볼까요?

Q

사내의 좋은 조직 문화
중에 이수가족에게 소개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최상규 과장
(이수페타시스 연구1팀
적층파트)



최상규 과장

안녕하세요 질문에 앞서 새해에는 모두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뜻깊은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조현택 과장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도 과장님께서 희망으로 가득한 2021년
맞이하시길 빌게요.



최상규 과장

조현택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이수그룹의 조직 문화 중에 다른 임직원
혹은 회사 바깥 사람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조현택 과장



그럼요 제가 소개 드리고 싶은 이수건설의 조직 문화 중 가장 특별
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봉사과 기부입니다.



최상규 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조현택 과장



전체 회원수가 대략 80명인 이수건설 사회봉사 동우회는 국내 아
동 10여 명을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
라 소아암 환우돕기 마라톤대회, 코로나 피해지원 성금모금 등의 기
부 활동도 꾸준히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최상규 과장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군요. 생각보다 회원수도 많아서 살짝 놀
랐습니다.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조현택 과장



아마도 봉사활동에 대한 반응이 가장 큰 보람이 아닌가 싶어요. 특
히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국내 후원 아동들로부터 감사 인사가
전해지면 이 힘든 시기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솟아오르는 느낌이
거든요.

벌써 많은 수의 다른 계열사에서도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
는 걸로 알고 있으니 과장님을 비롯해 이 글을 읽고 있는 이수가족
여러분도 올해는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남을 도울
수 있다는 행위 자체가 주는 기쁨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답니다.

A

조현택 과장
(이수건설 재경팀)

Q

회사에서 내가 자주 하는 '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박지훈 과장
(㈜이수 HR)



박지훈 과장

저는 평소에 다른 이수가족들은 회사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TV와 인터넷에서 자주 들었던 '척'에 대해 알고 싶네요.

손태영 사원



저도 그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다. 사회나 가정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처세를 가리켜 요즘은 '척'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지훈 과장

맞아요. 괜찮은 척, 다이는 척, 센 척 등등 다양한 '척'들이 있습니다.

손태영 사원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척'이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요즘처럼 여유가 부족한 시기에는 스스로 '온화한 척' 혹은 '쿨한 척'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이 너무 경직되어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거죠.



박지훈 과장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이 가네요.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스스로 암시를 주며 경직된 부분을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는 '척'이라면 언제든 실천해야겠죠.

손태영 사원



음... 그리고 보니 제 대답이 너무 궁서체였나요? ^^



박지훈 과장

아니에요.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다양한 생각이 궁금했던 거니까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 것 같아 덩달아 기분도 좋아집니다.

A

손태영 사원
(이수페타시스 구매팀)

Q

집콕생활이 길어지는 요즘 공유하고 싶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을까요?

고승한 차장
(이수시스템 Cloud 서비스팀)



고승한 차장

코로나19로 인해 휴가 중에도 집콕을 했던 1인입니다. 과장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권기연 과장



저 역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주로 온라인을 통해 세상 소식을 접하거나 유튜브 영상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네요.



고승한 차장

그렇군요. 저는 평소에 일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이수인들은 어떻게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권기연 과장



SNS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SNS 활용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멀리 떨어진 가족, 친지, 친구들과 화상통화도 하고, 유튜브 영상을 보며 홈 트레이닝도 하고 있습니다.



고승한 차장

디지털과 모바일 기기를 아주 적절히 활용하면 좋은 점이 많군요.

권기연 과장



네 맞습니다. 디지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이 들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고승한 차장

홈 트레이닝은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던가요?

권기연 과장



체력관리라는 당연한 효과 말고도 영상을 보고 따라 하는 동안 땀 흘리며 집중하게 되니 스트레스 받았던 경험을 잊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더라고요. 게다가 트레이닝을 따라 하면 혼자 있는 시간도 혼자가 아닌 것처럼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습니다.

A

권기연 과장
(이수화학 R&D 1팀)



내 방에서 따라해 보는 이지 홈 트레이닝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이 주목받고 있다. 운동부족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특별한 장비나 도구 없이도 건강한 몸을 가꿀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연성, 근력, 체력 등을 고려해 초급자들을 위한 생활 속 3가지 운동 루틴을 소개한다.

글_ 박진만(유어짐애펠라테스 역삼점 이사)



박진만 | 트레이너, 바디 스타일리스트

국내 1호 바디 스타일리스트로 KBS, SBS, MBC, tvN, 연합뉴스TV 등 다수의 지상파 및 케이블 채널 게스트로 출연한 바 있으며 <퀸>, <에스콰이어>, <아레나옴>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 트레이닝 관련 칼럼니스트 및 모델로 활동했다. 또한 <블랙비의 건강 FM>의 저자이며 지난 2017년에는 한국인 트레이너 최초로 뉴욕 타임스퀘어에 광고가 걸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방(혹은 침대)에 앉아 해보는 간단 스트레칭

솔루션 | 하체 스트레칭

다리 근육을 풀어주면서 걷거나 계단 오르기 운동을 통해 근육을 키우면 모든 일상의 활동을 쉽게 할 수 있으며, 대사량이 늘어나 단 순히 걷는 것만으로도 보다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1_ 팔과 다리를 펴고 바닥에 편안하게 엎드린 자세로 준비한다.



2_ 오른손으로 오른쪽 발목을 잡고 숨을 내쉬며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발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당긴다.



3_ 3~4초간 유지한 뒤 왼손으로 왼쪽 발목을 잡고 동일한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실시한다.

tip! 허리를 굽히거나 골반을 비틀면 안 된다.

컴퓨터와 업무로 인해 어깨가 빠근할 때

솔루션 | 어깨 스트레칭

어깨는 부상이 발생하기 쉬운 뼈, 근육, 힘줄, 연골 등으로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평소에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1_방이나 침대에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무릎 위에 양손을 올려 놓는다.



2_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잡아 자연스럽게 숨을 내쉬며 왼쪽 어깨 쪽으로 당긴다.



3_3~4초간 멈춘 뒤 반대 손으로 바꿔 동일하게 실시한다.

tip! 팔에 과하게 힘을 주어 몸통이 틀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오래 앉아 있어서 허리가 아플 때

솔루션 | 등 위쪽 스트레칭

등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때문에 평소 근육이 뭉치지 않게 자주 풀어주는 것이 좋다.



1_바닥에 엎드려 두 손을 앞으로 밀어 가슴 부위와 팔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뻗어 준다.



2_숨을 내쉬며 어깨를 펴고 등이 활처럼 휨 상태로 양팔을 바닥 쪽으로 누른다.



3_3~4초간 멈춘 뒤 처음 자세로 돌아와 3회 더 실시한다.

tip! 상체를 들어 올릴 때 다리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소의 해, 나의 브랜드는 OOO입니다!

2021년
이수그룹 26기
신입사원

2021년 새해를 이끌어 갈 이수그룹 공채 26기 신입사원들이 마침내 스타트 라인에 섰다. 올해는 온택트 시대에 맞춰 대부분의 입문 교육 과정을 온라인으로 마쳤다고 한다. 능력과 열정을 두루 갖춘 15인의 프레시맨들, 각자의 이름 삼행시를 통해 그들의 당찬 포부를 들여보자.



이수화학



조현기 사원

- 조** 조그마한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 현** 현명하신 선배님들께 많이 배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기** 기(귀)여운 신입사원 조현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 김하은

하 하고 싶은 일이든 아너든

은 은(언)제든지 성실하게 이뤄나가겠습니다!



김하은 사원



정지훈 사원

- 정** 정지 없는 삶
- 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 훈** 훌륭한 일처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서혁신 사원

- 서** 서로 아직 모르는 것은 많지만
- 혁** 혁신적인 생각으로
- 신** 신사업에 도전하자!

이수화학



이상호 사원

- 이** 이수화학 선배님들
- 상** 상호라는 넓고 깊은
- 화** 화수에 빠져보시겠습니까?

- 박** 박수를 맞이해주세요!
- 지** 지금은 R&D 팀의 신입사원일 뿐이지만
- 훈** 훈(훈)날 이수화학을 번창하게 만들 인재랍니다



박지훈 사원



노지웅 사원

- 노** 노력하겠습니다!
- 지** 지켜봐 주실 거죠?
- 웅** 응응~!



전민우 사원

- 전** 전진한다
- 민** 민첩하게
- 우** 우직하게

이수건설



박규하 사원

- 박** 박력미 넘치고 의기투합
- 규** 규칙적인 뉴페이스~
- 하** 하고집이 박규하입니다!

- 오** 오를뿐만 아니라 매사에
- 상** 상상을 현실로 실현시킬 수 있는
- 우** 우수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오상우 사원



전재현 사원

- 전** 전문가로 성장하겠습니다.
- 재** 재치있게 적응하여
- 현** 현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 김** 김씨라는 성도 높이고
- 민** 민정이라는 이름도 높이지만
- 정** 정말 손치양계 일 잘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김민정 사원

이수시스템



박정환 사원

박

박식하고

정

정 많은 제가 바르

환

환타스틱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송

송민수야

민

민들레 꽃처럼

수

수수하지만 절진 생명력으로 나아가자



송민수 사원

이수엑사캠



박준범 사원

박

박수 받으며 들어온

준

준비된 인재 공채 26기 동기들이!

범

범람하는 강물처럼 거침없이 전진하자!

이수타그램



서태석 사원(이수엑사캠 영업3팀)



그랜드 캐년에서 경험한 광활한 세상

2019년에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명소' 중 하나인 그랜드 캐년에 다녀왔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는 자주 접해봤지만, 실제로 보는 것은 처음이라 정말 설레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도착했을 때 창 밖에 광활한 대지가 펼쳐지더군요. 자연에 압도되는 느낌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사진에 나온 홀스 슈 밴드(Horse shoe band)를 보려고 언덕 끝으로 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그냥 사진으로 보던 것과 실제로 체험하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평소에는 서울에만 있다 보니, 세상을 보는 관점이 좁았던 것 같습니다. 일이든 취미든, 뭐든 직접 해봐야 진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것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일도 직접 체험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경우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랜드캐년 #그리운 #미국여행 #시아넓히기



표형수 사원(이수시스템 ERP사업팀)



희망을 찾는 2021년 새해가 되시기를

12월, 드디어 서울에도 처음으로 눈이 쌓였네요. 눈 뜨자마자 눈 쌓인 풍경을 찍었는데 안개가 절반이더군요. 이제 2020년도 끝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문득 올해 내가 이룬 게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지나간 많은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코로나19지만요. 2020년이 시작될 때 목표로 삼았던 많은 일들 중에 이루기는 커녕 시작도 못한 일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미완의 계획들을 못했던 일이라고 자책하기보다 올해 실천했던 것들을 찾아 스스로 칭찬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것이라도 실천한 부분이 있다면 저 자신에게 상도 줘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2020년의 자신을 격려하고, 희망찬 2021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

#눈내린풍경 #나를 #칭찬해 #2021년 #희망

독자 여러분의 사진을 받습니다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 곁엔 놓치기 아까운 행복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 속에 담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순간들을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사보에 실리는 행운과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카카오톡 ID : creativekeym / 이메일 : hjkim1@isu.co.kr

OUT
SIDE





얼음 바람 물리치는 건강한 제철 음식

겨울은 황량한 계절이지만 바다는 지금이 가장 풍요롭다.
바다에서 나는 제철 먹거리인 새조개와 대구, 과메기의 속살이 어울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충남 홍성, 남해 진해만 그리고 포항 구룡포로
건강한 맛을 찾아 떠난다.



새조개, 천수만이 낳은 명품 조개

홍성 남당항의 겨울은 명품 조개라 불리는 새조개가 가장 맛있는 시즌이다. 새조개는 얼핏 보면 동족이나 바지락 등의 조개들과 큰 차이점이 없어 보이지만, 단단한 껍질이 열리면 드러나는 속살이 마치 조류의 부리를 닮았다고 하여 '새조개'라 불리고 있다. 이처럼 독특한 모양과는 달리 새조개의 속살은 담백하면서도 감칠맛이 좋으며, 타우린을 비롯해 칼륨, 철분 등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타우린은 자연이 주는 피로회복제이며, 칼륨과 철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주고 혈관 속 노폐물 제거에 좋다고 한다.

천혜의 양식장인 천수만을 끼고 있는 남당항 일원은 오래전부터 새조개 산지로 유명한 지역으로, 홍성군은 벌써 15년 넘게 '남당항 새조개축제'를 개최해 왔다. 아쉽게도 올해는 축제 개최가 어렵지만 서해안 최고의 별미로 손꼽히는 새조개의 명성만큼은 여전하다.

새조개는 겨울이 시작되는 12월부터 그 이듬해인 1월과 2월까지 가장 많이 잡힌다. 바로 지금이 새조개를 맛볼 수 있는 최적기라 할 수 있는 것. 남당항에 위치하는 대부분의 횡집에서 새조개를 취급하고 있다.



info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213(남당항)
041-630-1227~8(홍성군청 문화관광과)



겨울의 진객, 대구의 계절이 돌아왔다.

동해에 명태가 있고 서해에 조기가 있다면 남해안에는 입 큰 물고기 '대구(大口)' 있다. 대구가 많이 잡히는 남해안의 부산과 거제, 창원 등지에서는 싱싱한 생대구를 넣어 진하게 끓여낸 대구탕을 지금 이 계절에 반드시 먹어야 할 제철 먹거리로 꼽아준다. 대구와 함께 무, 콩나물, 두부, 바지락 등을 넣어 뽀얗게 끓여낸 대구탕 국물 한 모금은 추위를 잊게 만드는 보약 같은 제철 먹거리. 경남의 바닷가 지역에서는 알이 꽉 찬 생대구를 잘 말린 것을 '약대구'라고 불렀으며,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말린 건대구가 보신 음식의 식재료로 귀한 대접을 받았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대구가 "먹으면 기운을 보하는데 내장과 기름의 맛이 더욱 좋다"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대구 산지로는 남해안의 진해만을 첫 손에 꼽아준다. 12월에 시작되어 2월까지 이어지는 대구잡이로 인해 진해만의 겨울 바다는 이른 아침부터 활기를 띤다. 대구탕을 맛보고 싶다면 진해만 주변에 위치하는 부산 가덕도 천성항, 거제 장목면의 외포항, 창원시 진해구 용원항 등지를 찾아가면 된다.



info
 부산 강서구 천성동 646-2(천성항)
 051-970-4061(부산 강서구청 문화관광과)



공치의 놀라운 변신, 구룡포 과메기

갓 잡은 싱싱한 청어를 겨울바람에 1주일 정도 말리면 삼한사온에 의해 얼었다 녹는 일을 반복하며 수분함량 40% 정도의 쫄득한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과메기다. 과메기라는 말은 청어의 눈을 꼬챙이로 꿰어서 말렸다는 관목(貫目)에서 유래한다. 요즘은 청어가 귀해져 과메기는 거의 공치로 만들지만 맛있기는 마찬가지다. 과메기는 막 잡은 활어였을 때보다 과메기가 되었을 때 영양가가 더 풍부하다. DHA와 오메가3지방산이 증가하고, 칼슘과 비타민도 풍부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과메기를 건강식품으로 여긴다. 영양가뿐 아니라 맛 또한 독특한데, 투박하면서도 구수한 생선의 맛을 즐기는 것은 진정한 식도락가의 차지다. 포항에서는 지역 특산물 과메기를 홍보하기 위해 과메기 특구를 지정했을 뿐 아니라 과메기 축제도 열고는 했다. 죽도시장에 위치한 과메기 특구에서는 된장, 채소, 김, 미역 등 과메기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식재료를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다.



info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읍 호미로 222-1(구룡포항)
 054-270-2253(포항시청 문화관광과)

호빵 정류장과 밀가루 맥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콜라보 굿즈 마케팅의 세계



COLLABORATION

호빵 찜기 모양의 버스 정류장과 밀가루 포대를 닮은 티셔츠, 구두약 회사의 화장품과 소주 회사가 차린 어린이들의 문방구까지. 최근 기업들의 콜라보 굿즈 마케팅이 한계를 모르고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기업의 매출 증대는 물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소비자화 시장에 효과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콜라보 굿즈 마케팅의 문을 열어볼까.

글_ 김태진(칼럼니스트)



서울시내 한복판에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는 호빵 버스 정류장.



삼립호빵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을 수 있는 호점은 순식간에 완판되었다.

온갖 기발한 아이디어를 동원한 굿즈(Goods) 마케팅이 갈수록 더욱 큰 이야기거리를 낚으며 기업 마케팅의 태풍의 눈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굿즈 마케팅이 단순히 제품을 판매해 매출 증대를 꾀하는 단계를 넘어 자사의 역사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소비자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도너츠 회사가 아웃도어 열풍에 착안해 유럽의 텐트 메이커와 함께 캠핑용 수납박스를 선보이거나 밀가루 회사가 의류 회사와 협업하여 패딩 점퍼를, 구두약 회사가 자사 로고를 인쇄한 수제 맥주를 출시한 사례가 그렇다. 엉뚱한 발상으로 브랜드 가치를 부업 시키는 기업들의 마케팅 기법은 호빵 찜기 모양의 버스 정류장이 등장하면서 다양성과 확장성 측면에서도 기존의 경계를 뛰어넘고 있다.

찬바람 막아주는 고마운 호빵 정류장

연일 한파가 몰아치던 서울 강남 한복판에 따르면 호빵 찜기 버스 정류장이 등장했다. 우리나라 호빵의 살아있는 역사와도 같은 기업인 SPC삼립이 '삼립호빵 출시 50주년을 맞이해 준비한 이 버스 정류장은 유리로 가림막을 설치한 정류장 내부에 온풍기와 온열 벤치를 설치했을 뿐 아니라 외관은 호빵 찜기 모양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엉뚱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동원한 기업 마케팅이 한겨울 추위 속에서 시민들에게 따뜻한 웃음을 선사한 것이다.

삼립은 지난해에도 온라인 채널을 통해 자사의 굿즈(Goods)인 호점이(호빵 미니 찜기)와 호습기(호빵 찜기 모양 가습기)를 선보여 SNS 상에서 인기를 독차지하는 등 굿즈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호빵과 함께 패키지로 선보인 두 종류



하이트진로는 서울 성수동에 어린이들을 위한 문방구 '두껍상회'를 팝업 스토어 형태로 운영해 환영 받았다.

의 굿즈 모두 한정 수량이 완판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구할 수도 없을 만큼 반응도 좋았다고 한다. 1971년 처음 세상에 나온 삼립호빵은 지난 50년 동안 무려 60억 개가 넘는 호빵을 팔았는데 이는 호빵을 먹을 수 없는 갓난아이를 제외하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호빵을 하나씩 먹고도 남을 양. SPC삼립은 이러한 전통과 역사를 담아 '삼립호빵 브랜드 북'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어린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던 두껍상회

호빵 버스 정류장과 굿즈의 사례를 포함해 최근 여러 기업들이 전문 분야와는 전혀 다른 굿즈 마케팅을 전개하면서 자사의 이미지 개선과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업으로는 주류회사인 하이트진로를 꼽을 수 있다. 하이트진로는 자사를 대표하는 캐릭터인 두꺼비를 활용해 어른들의 문방구 '두껍상회'를 운영하면서 어른이 (어른과 어린이의 합성어)들의 큰 환영을 받았다. 지난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두 달여 기간, 서울 성수동에 팝업 스토어 형태로 오픈했던 두껍상회는 주류 업계 최초의 캐릭터 숍이다. 팝업 스토어에서는 이미 완판 기록을 달성하며 최고의 '인싸템'으로 유명세를 떨친 참이슬 백팩을 비롯해 두꺼비 피규어, 메모장, 슬리퍼, 스티커, 러기지 태그 등 다양한 캐릭터 상품을 판매했다. 게다가 매장 앞에 설치된 두꺼비 캐릭터 벤치는 인증샷의 성지로 등극하며 하이트진로와 두꺼비를 SNS 스타로 만들었다. 제품 특성상 매장 내 미성년자 입장불가라는 제약 그리고 코로나19 인해 입장객 수를 제한하는 엄격한 방역수칙 적용에도 불구하고 두껍상회 누적 방문객 수는 1만 명을 상회하며 흥행에도 성공했다. "안심하세요. 구두약 아닙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성세대에게 구두 광택제로 잘 알려진 말표산업이 화장품 브랜드 닥터케라피와 함께 콜라보 제품을 선보였다. 자사의 구두약 철제 케이스에 담아 판매한 핸드크림과 립밤 등의 제품이 이슈 물이를 하고, 말표 흑맥주 역시 초도 생산물량인 10만 캔이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 이후 수제 맥주 제조업체인 스퀴즈 브루어리가 생산하는 말표 흑맥주는 지난해 11월 편의점 맥주 매출 순위에서 4위에 올랐으며, 출시 한 달 만에 100만 캔을 판매하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대한제분은 자사의 대표 브랜드 곰표를 활용해 의류에서 화장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 콜라보 굿즈의 끝판왕으로 등극했다.



대박 히트 친 밀가루 회사의 굿즈

사실 '말'보다 앞서 대박을 친 콜라보(콜라보레이션) 맥주의 선구자는 '곰'이다. 말표 맥주보다 한참 앞서 판매를 시작했지만 곰표 맥주 역시 편의점에 없어서 못 판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꾸준한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내년이면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제분의 밀가루 브랜드인 곰표는 요즘 없어서 못 파는 희귀 아이템 맛집으로 분류된다. 초절정 인기 아이템은 곰표 밀가루가 아니라 밀맥주, 패딩 점퍼, 티셔츠, 팝콘, 핸드크림, 모자, 노트, 머그컵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심지어 화장품에는 실제로 곰표 밀가루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 이렇게 제품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마블 히어로의 세계관을 뜻하는 마블 유니버스에서

명칭을 따와 '곰표 유니버스'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을 정도다.

패딩 점퍼나 티셔츠 같은 곰표 굿즈 의류가 처음 출시됐을 때만 해도 이전에 볼 수 없던 콜라보 의류가 신기해서 구입하고 싶지만 실제로 착용한 채 외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았다. 그러나 모바일을 통해 자신을 알리는 일에 익숙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곰표 의류 구매자들이 SNS에 인증샷을 올리면서 낯선 패션에 대한 거부감도 확 줄었다.

편의점에서 맛보는 시멘트 팝콘

콜라보 제품이 본격적으로 대유행을 하기 전까지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맥주로 한정되던 제품군

이 과거에 비해 훨씬 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CU편의점이 출시한 콜라보 제품의 상품 수는 2019년 70종에서 2020년에는 400종으로 늘어나 거의 6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세븐일레븐과 GS25 등 다른 편의점 프랜차이즈에서 진행되는 콜라보 제품도 상황은 비슷하다. 천마표 시멘트 팝콘, 미원 맛소금 팝콘, 숙취해소 음료의 성분을 첨가한 라면, 보일러 제조회사의 브랜드를 달고 나온 방한용품까지, 이제는 일일이 손에 꼽기 어려울 만큼 종류가 다양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편의점과 함께 30만 개 한정 상품

으로 내놓은 '희망줄라면'은 수익금 일부가 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지원금으로 쓰인다.

학생들의 교복을 만드는 기업인 '스마트학생복'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91.6%의 청소년이 '이색 콜라보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거나 앞으로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특이하다', '재미있다', '더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등 긍정평가의 합계도 81.3%에 달했다.

가심비를 중요시하는 편슈머의 소비문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른바 가심비를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문화의 확산은 굿즈 마케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로 꼽힌다 가심비란 가성비에 마음 심



구두약 맥주, 골뱅이 맥주 등 기발한 제품의 등장으로 인해 굿즈 마케팅의 열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굿즈 마케팅 성공의 비결은 가심비를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문화가 확산된 덕이다.



(心) 자를 더한 신조어로 가격이나 성능보다 심리적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소비성향을 일컫는다. 말하자면 소비자는 같은 가격이거나 혹은 조금 비싸더라도 재미있는 물건에서 가심비를 찾는다는 뜻이다. 소비를 하면서도 재미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가심비와 편슈머는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소비 패턴을 파악한 기업들이 편슈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그들에게 친숙한 캐릭터로 접근하거나 독특한 콘셉트의 한정판 상품으로 지름을 유도하는 케이스가 지금의 상황과 잘 맞아떨어진다.

예를 들어 다소 엽기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유동골뱅이 맥주 역시 재미를 소비하는 트렌드에 대응해 내놓은 상품으로 볼 수 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세븐일레븐과 골뱅이 가공관 1위 업체인 유동이 기획해 출시한 이 맥주는 캔의 디자인이 골뱅

이 깡통과 매우 유사하며 '자연산 골뱅이'에는 맥주라는 문구가 제품명으로 프린트되어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을지로 맥주골목에서 치킨과 함께 골뱅이무침이 인기라는 사실에 착안해 수제 맥주와 골뱅이를 푸드 페어링(Food pairing) 한 셈이다. 앞서 언급한 것보다 훨씬 많은 유사 사례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콜라보 굿즈 마케팅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시장에서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 콜라보 굿즈 구입으로 해당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생겨나면 소비자나 기업 사이에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법이다. 또한 이는 자연스럽게 기업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한다. 해가 바뀌고 나서도 식을 줄 모르는 콜라보 굿즈 마케팅의 열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코로나가 끝나면 가고 싶은 여행지

어디든
떠날 수 있는
방구석 여행
할 뻔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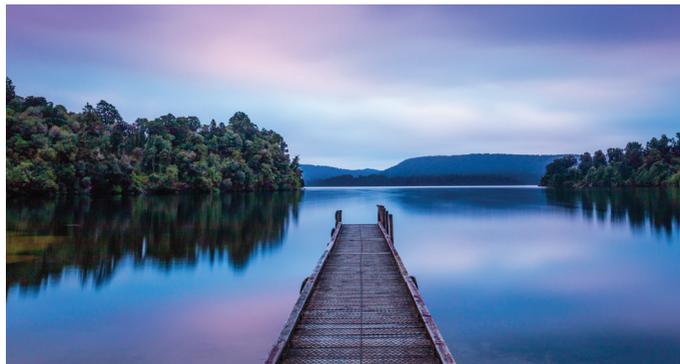
최근 네티즌과 언론을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가장 먼저 여행이 가능한 모범 방역국이 소개되면서 해당 국가의 유명 관광지들이 주목받고 있다. 가장 먼저 여행자들에게 문을 열게 될 국가들은 한국을 비롯한 뉴질랜드, 타이완, 오스트리아 등 코로나19 모범 방역국이 될 것이라고 한다. 뉴질랜드 남섬에서 오스트리아의 동화 속 풍경까지, 방구석에서도 가능한 랜선 여행을 떠나볼까.

글_ 류재민(여행작가)

태고의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땅
뉴질랜드 남섬

행정 중심지인 북섬에 비해 뉴질랜드 남섬은 거의 개발되지 않아 태고의 자연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 피오르드(Fjord)라 불리는 거대한 협곡의 장쾌한 풍경과 여왕의 도시 퀸스타운 그리고 헬리콥터를 이용해 프란츠 조셉 빙하를 둘러보는 투어까지. 자연과 도심이 아우르는 다양한 볼거리를 품고 있다는 점이 뉴질랜드 남섬 탐험의 특징이다.

뉴질랜드 남섬의 동부 해안은 자동차로 달려야 제 맛이다. 초원과 바다가 번갈아 펼쳐지며 환상적인 풍경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남극 대륙과 가까운 탓에 '세계 최남단 도시'라 불리는 블러프를 거쳐 빙하의 고장 밀포드 사운드로 향한다. 영화 <반지의 제왕> 촬영지로 알려진 퀸스타운은 여왕이 살기 좋을 만큼 아름답다고 해서 지금의 이름이 붙여졌다. 도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고봉준령들과 함께 와카티푸 호수가 가장 큰 볼거리이며 스카이다이빙과 같은 익스트림 레포츠도 즐길 수 있다. 남섬 탐험의 대미를 장식할 여정은 프란츠 조셉 빙하 투어다. 말로만 듣던 만년설로 뒤덮인 해발 3000m 이상의 고봉과 새하얀 빙하도 돌아보자.



Hot Place in 뉴질랜드 남섬

밀포드 사운드 피오르드 Milford Sound Fjord

피오르드(Fjord)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빙하가 형성시킨 U자 형태의 협곡이다. 협곡을 따라 내륙 깊숙한 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와 웅장한 풍경을 연출한다. 밀포드 사운드 피오르드(Milford Sound) 역시 그러한 지형으로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피오르드 국립공원(Fjord National Park)으로 지정돼 있다. 선착장까지 가는 버스와 크루즈를 묶은 패키지 상품을 미리 예약한다면 배를 타고 장엄한 협곡 속으로 들어가는 진기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다.



퀸스타운 Queenstown

퀸스타운은 이름 그대로 여왕이 살기에 좋을 만큼 아름답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곳이다. 워낙 풍경이 아름다워 근처에서 영화 <반지의 제왕>의 일부 장면들을 촬영했다고 한다. 아름다운 도시 주변을 마치 호위하듯 둘러싼 웅장한 산맥과 뉴질랜드에서 세 번째 크기를 자랑하는 와카티푸 호수 등의 볼거리가 있다. 8000여 명이 사는 아주 작은 도시지만 스카이다이빙, 번지점프, 카야킹 등 매우 다양한 액티비티도 체험할 수 있다.

프란츠 조셉 빙하 Franz Josef Glacier

프란츠 조셉 빙하는 뉴질랜드 남섬 서쪽의 웨스트랜드 국립공원(Westland Tai Poutini National Park)에 속한 볼거리다. 만년설로 뒤덮인 해발 3000m가 넘는 고봉과 저지대의 연안 우림지 등 뉴질랜드의 다양한 자연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폭스 빙하와 프란츠 조셉 빙하로 지금도 하루 최고 4m 가량 빙하가 흘러내리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부담 없이 다녀오는 남국의 섬
타이완

대표적인 중화권 여행지인 타이완은 같은 아시아 문화권이라는 공통점 덕분에 우리에게 친숙할 뿐 아니라 짧은 비행시간 덕분에 피로감도 적다. 또한 열대와 난대 기후를 보여주고 있어 한겨울에 찾아가도 온화한 날씨 속에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장점이다.

타이완 여행은 수도인 타이베이로 중심을 돌아보는 여정이 가장 대중적이다. 중화권의 온갖 보물들이 한데 모인 국립고궁박물관과 한때 세계 최고 높이 빌딩이라는 기록을 보유했던 타이베이101빌딩 그리고 한낮의 더위를 피해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야시장 등 전통과 현대를 두루 살필 수 있는 도시가 바로 타이베이이다.

그러나 도시를 벗어나면 더욱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다. 바닷가에 옹기종기 모인 기암들이 신비로운 풍경을 연출하는 예류 지질공원, 영화 <비정성시>의 촬영지 지우펀 그리고 타이완 섬 최북단 온천지대인 베이더우는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는 추억을 남겨줄 것이다.



Hot Place in 타이완

예류 지질공원 Yehliu Geopark

타이완 북쪽 바닷가에 위치하는 해안절경이다. 해변을 따라 바람과 파도가 빚어낸 기암들이 늘어선 풍경은 이 세상의 풍경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신비롭다. 얼핏 보면 커다란 버섯들이 바닷가를 가득 채운 듯 보이지만 계란바위, 슬리퍼바위, 여왕머리 등 다양한 형태의 독특한 용암과 사암들을 볼 수 있어 마치 자연이 만들어 놓은 암석 박물관 같다. 예류 지질공원에서 돌고래와 바다표범이 있는 해양세계공원도 관람 가능하다.



지우펀 Jiufen

지우펀은 예류 지질공원에서 자동차로 40분 거리에 불과해 하나로 묶어 여행하는 게 보통이다. 타이완의 옛 정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지우펀(九份)은 20세기 초기에 아시아 최대의 금광도시로 이름을 날리면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기도 했다. 금광의 폐광과 함께 몰락하는 듯했으나 영화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마을은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끝도 없는 계단을 따라 카페와 찻집, 식당들이 즐비하며 붉은 등이 걸린 시장을 구경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베이더우 온천 Beitou Hot Spring

19세기에 타이완 최북단의 온천지대가 개발되면서 베이더우는 대만 최고의 온천마을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타이베이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타이완 사람들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베이더우 온천에는 온천과 함께 다양한 숙박시설도 있어 온천 여행지로 훌륭한 조건을 갖추었다. 그중에서도 자욱하게 피어나는 수증기와 함께 특유의 유황 냄새로 인해 지옥을 연상시킨다는 지옥곡(地獄谷)은 베이더우의 명물로 이름 나 있다.



알프스의 동화 같은 풍경 속으로
오스트리아

반세기가 넘는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명작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실제 배경인 오스트리아는 유럽의 지붕 알프스 자락에 안겨있는 동화 같은 나라다. 알프스의 초원과 설산은 영화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는데, 주인공 마리아가 견습 수녀로 머물렀던 논베르크 수녀원이 바로 잘츠부르크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논베르크 수녀원은 714년에 세워졌으니 그 역사가 천년도 훨씬 넘는 유서 깊은 장소다.

잘츠부르크 동쪽의 소도시 잘츠카머구트에 숨겨진 호수 마을 할슈타트 역시 <사운드 오브 뮤직>의 촬영지다. 에메랄드 빛깔 호수 위에 비친 마을 풍경은 그대로 스마트폰 배경화면으로 사용해도 좋을 만큼 환상적인 분위기로 가득하다. 세 번째로 들를 곳은 눈 덮인 알프스의 고봉들이 건물 뒤편으로 펼쳐지는 인스브루크다. 이 도시에서는 유서 깊은 역사적 건물들을 구경하는 재미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Hot Place in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Salzburg

수도 빈에서 서쪽으로 약 300km 지점에 위치하는 잘츠부르크는 오스트리아가 낳은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의 고향이다. 잘츠부르크는 음악의 고장이면서 동시에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도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유럽 3대 음악 축제인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이 열리기 때문에 매년 여름 전 세계의 수많은 음악가들이 이곳을 찾는다. 잘츠부르크의 옛 도심은 지난 199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할슈타트 Hallstatt

유럽을 대표하는 풍경으로 꼽히는 할슈타트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촬영지였던 잘츠카머구트의 소읍이다. 뾰족한 첨탑과 박공지붕을 머리에 얹은 고딕과 바로크 양식 건물들이 호수에 반영된 모습은 어렸을 적 동화 속에서나 봤을 법한 환상적인 풍광을 선보인다. 잘츠카머구트의 진주라고 불리는 할슈타트는 알프스 자락의 유명한 휴양지인 만큼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기보다 산책하며 여유롭게 돌아보는 편이 좋다.

인스브루크 Innsbruck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와 경계를 이루는 지역으로 새하얀 설산을 배경으로 늘어선 알록달록한 건물들이 매우 아름답다. 오스트리아 전체를 통틀어 관광 인프라가 가장 발달된 인스브루크는 도시 어느 곳에서도 알프스가 보이는 훌륭한 입지를 갖췄으며, 합스부르크 왕조가 번영을 이루었던 역사적 장소이기 때문에 문화유산도 많이 남아있다. 구리 지붕으로 덮인 푸르스텐부르크, 호프부르크, 프란체스코 수도회 교회가 가장 유명한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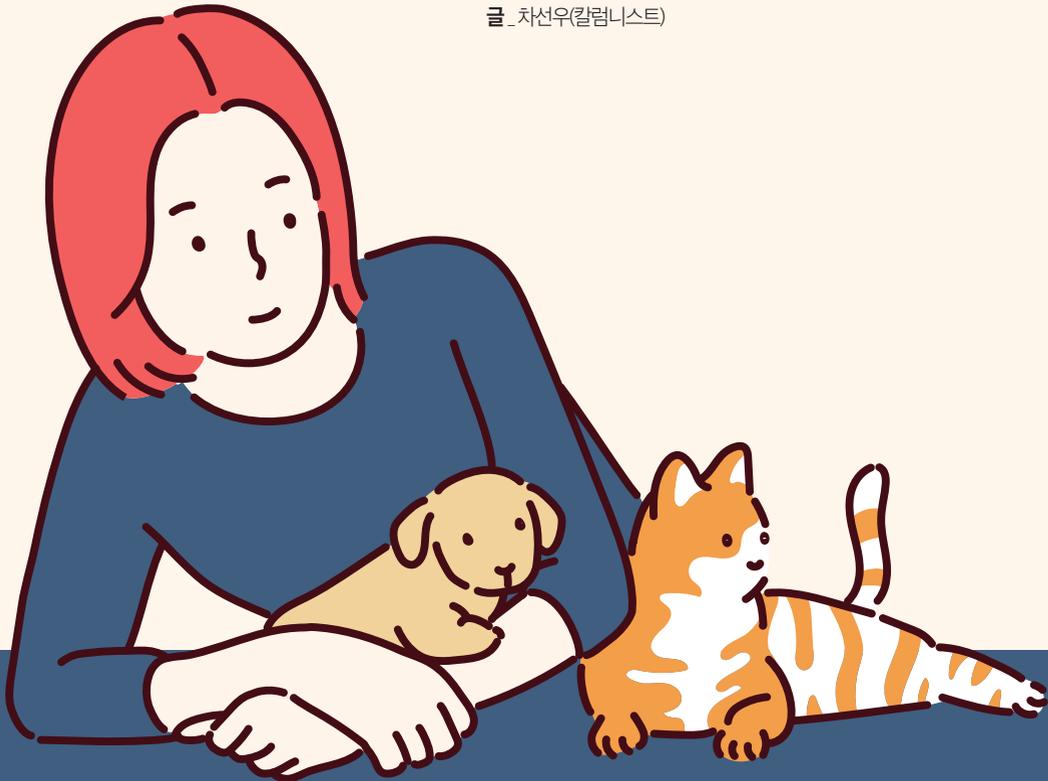


주접이라고요?
우리에게는 일상이랍니다!

냥이, 멍이의 집사 반려인들의 특별한 보통날

그야말로 냥집사와 개아빠의 전성시대다.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문화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SNS에 친숙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전용 계정을 만들어 반려동물의 사진을 공유하는 일이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스타 반려동물도 등장했을 정도다. 반려동물과 함께 즐거운 주접의 문화를 펼쳐 보이는 반려인들의 특별한 보통날을 들여다볼까?

글_차선우(칼럼니스트)



지금 우리는 1500만 명이 넘는 반려인의 시대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이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2000만 가구의 약 28%에 해당하는 558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니 네 집 중 하나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이 아닌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과거에 비해 늘어나면서 반려인들의 문화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SNS에 친숙한 요즘 반려인들이 자신의 일상을 올리는 계정과는 별도로 반려동물 전용 계정을 따로 만들어 사진을 올리는 일은 이제 낯설지 않은 온라인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단적인 예로 반려동물 관련 SNS 게시물의 숫자가 이러한 트렌드를 증명하는 가장 믿을 만한 근거가 되고 있다.

개와 인스타그램의 합성어인 '멍스타그램'의 해시태그 게시물 수 약 2500만 개, '고양이 + 인스타그램'을 뜻하는 '냥스타그램'의 해시태그 게시물 수도 무려 1500만 개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강아지그램, 고양이그램 등 유사한 해시태그까지 포함 시킨다면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 밖에도 햄스터 + 인스타그램을 뜻하는 '햄스타그램' 고슴도치 + 인스타그램을 뜻하는 '고슴도치그램' 같은 해시태그 수의 증가는 반려동물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지표가 되고 있다.

일상이 되어버린 유쾌한 주접과 주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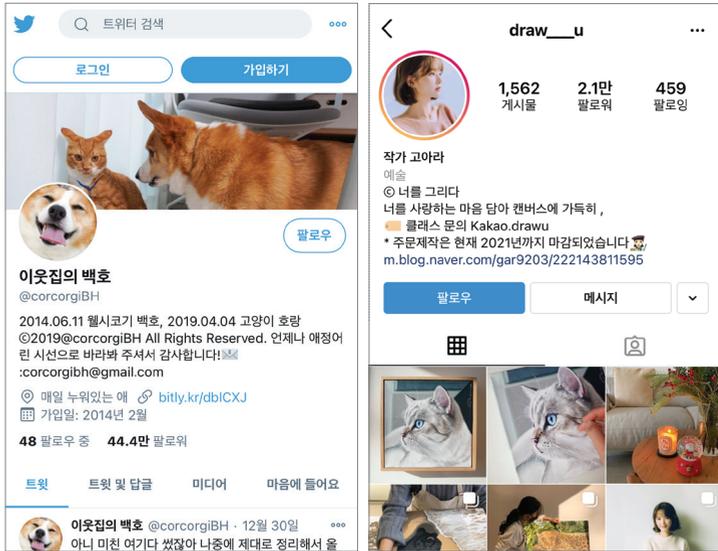
트렌드 모니터가 발표한 '2019 반려동물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의 절반이 MZ(밀레니얼 + Z)세대라고 한다. 모바일과



남을 의식하지 않는 젊은 세대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문화도 다르다

인터넷에 익숙하고 남을 의식하기보다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그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문화도 남다르다. 우리가 흔히 주접 혹은 주책이라고 말하는 과장된 표현이나 과한 애정 공세를 스스로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스스로를 냥집사 혹은 개아빠로 부르는 것에 익숙하다. 여기서 '냥집사'와 '개아빠'는 고양이 혹은 개의 반려인을 뜻하는 신조어다.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 사이에 출생한 세대)인 냥집사 김명진 씨(35)는 결혼하면서 아내가 데려온 고양이가 처음에는 달갑지 않았다고 한다. 평소 약한 비염이 있어 고양이 알레르기가 걱정되기도 했거니와 어렸을 때 잠시 강아지를 키웠던 것 말고는 반려동물과 함께 해 본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걱정은 기우에 그쳤다. 이제 막 한 살이 된 고양이 '숨이'는 불임성 많고 스킨십을 좋아하는 '개냥이' 과였기 때문. 그가 외출했다 돌아오



반려인들은 반려동물 전용 SNS 계정을 만들거나 반려동물 초상화 클래스를 수강하는 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면 찌르르 문 앞으로 다가와 '야옹'하며 눈을 맞추는 솜이에게 금세 폭 빠지고 말았다. 고양이는 애교가 부족하고 무심하다고 생각했던 선입견이 보기 좋게 깨지고 말았던 것. 심지어 몇 년 전 가입만 하고 방치되어 있던 자신의 SNS 계정에 부지런히 고양이 사진을 올리고 있을 정도다. “요즘에는 솜이가 아내보다 나를 더 잘 따르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김명진 씨는 냥집사의 덕목인 ‘주접’과 ‘주책’을 두루 갖춘 모범적인 반려인의 모습이다.

랜선 이모와 삼촌들의 사랑 독차지하는 스타견 탄생

Z세대(1996년에서 2010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의 반려동물 사랑은 밀레니얼 세대보다 더 지극 정성이다. 앞서 언급했던 트렌드 모니터의 ‘2019 반려동물 관련 인식조사’를 통해 알아본 ‘반려동물 양육 태도 평가 설문’에서 Z세대는 ‘반려동물

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서라면 금전적 비용을 아끼지 않는 편(79.3%)이며 ‘반려동물의 규칙적인 운동이나 산책을 위해 내 시간을 기꺼이 내는 편(79.3%)’이라고 답해 설문에 응답한 다른 세대들과 비교했을 때 반려동물에게 가장 우호적인 양육 태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모바일 세상에서 스타 반려견으로 대접 받는 웰시코기 ‘백호’의 일상을 담은 트위터 계정인 이웃집의 백호(@corcorgiBH)는 팔로워가 무려 44만 명이 넘는 정도로 각별한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랜선 이모’ 혹은 ‘랜선 삼촌’이라 불리는 팔로워들은 단순히 해당 계정을 방문해 사진을 감상하는 단계를 넘어서 정성스레 마련한 선물을 보내거나 얼굴이 새겨진 굿즈를 구입하는 등 백호는 어지간한 연예인을 능가하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백호를 비롯해 상당수의 반려견과 반려묘들이 출생일

에 생일상을 대접받는 일은 더 이상 이상할 것이 없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반려인들도 있다. 반려견 콩이와 함께 살고 있는 고아라 작가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반려동물 초상화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다. 그의 인스타그램(@draw__u)을 들여다보면 반려견과 반려묘 초상화로 가득하다. 마치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처럼 섬세한 묘사가 돋보이는 그림에 매혹되어 클래스를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는 먼저 떠나간 반려동물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초상화로 표현하려는 반려인들도 있다고 한다. 고아라 작가는 반려동물의 그림을 주문 제작도 하고 있는데 이미 2021년까지 수량까지 마감되었을 만큼 주문이 밀려 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그림으로 남겨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반려인들의 애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반려동물을 위한 신용카드 아직 안 만드셨어요?

반려인의 수가 증가한 만큼 그와 관련된 산업의 매출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뜻하는 펫코노미(Pet+Economy)라는 용어의 등장도 그러한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규모는 약 3조 원에 달하는데, 전문가들은 2027년 경에는 펫 시장이 지금의 두 배에 달하는 6조 원 규모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과 관련된 기발한 펫 제품과 창업 아이템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장난감과 케어 기기를 비롯해 위치 추적기, 보안 카메라 등 IT 기술을 접목한 반려동물 관련 첨단 장비의 개



금융권에서는 반려동물 전용 신용카드도 출시되고 있다

발 및 생산에 국내 대기업들도 뛰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은행권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스마트폰 전용 신용카드인 펫카드를 선보인 것은 물론 반려견과 반려묘를 위한 적금이나 신탁, 상해보험 상품도 등장했다.

이러한 현상은 반려동물을 위한 지출에 돈을 아끼지 않는 반려인들의 소비 성향 덕분이다. 그들은 이름만 대면 알 법한 해외 유명 명품 브랜드에서 출시한 목줄이나 가방 등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대의 펫 액세서리 구입에도 큰 거부감이 없다. 백화점에 펫 전용 쇼피 코너가 들어서고 펫 뷔페나 호텔이 생겨나는 등 반려동물이 사람 못지않은 대접을 받고 있는 낯설고도 행복한 반려동물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가족을 유대감으로 엮어주는 귀한 존재

표면적으로는 젊은 층이 반려인들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반려동물이 부모님 세대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개나 고양이를 집에 데려오면 내다 버린다고 하던 부



반려동물은 반려인의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

모님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자녀에게 소홀해진다는 웃지 못할 경험담은 온갖 코믹한 짤방을 만들어내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 반려동물 덕에 무뚝뚝한 아버지와의 대화가 예전에 비해 늘어나거나 가족 간의 유대감이 커지면서 정서적 안정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당연한 결과다. 지난해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0 반려동물과 유대 원헬스 포럼'에서는 반려동물이 사람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통계와 다양한 실제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아이들의 70%가 기분이 상했을 때 가장 먼저 반려동물을 찾는다는 점이다. 특히 고양이의 경우 반복적으로 가르릉 거리는 '골골송'이 반려인의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올 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낮

추고 기분까지 좋아지게 만든다. 심지어 가족이나 친구보다 반려동물과 함께 있을 때의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낮았다고 한다. 반려견의 산책을 위해 함께 바깥에 외출하는 것 역시 운동부족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효과적인 운동 솔루션이다. 예컨대 미국, 독일, 호주 등의 국가에서 반려동물이 실제로 의료비 절감에 효과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적게는 수조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 이상 인간의 의료비를 줄여주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처럼 반려동물이 사람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으로 다양하므로 사람과 동물이라는 두 이종 간의 긍정적 유대관계를 더 이상 주접이나 주책으로만 보아서는 곤란하다. 반려인의 애정 표현은 이제 더 이상 주접이 아닌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 치유시키는 묘약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귀담아 듣는 독자 염서

사보 ISU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심 있게 보신 기사나 사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이수 사우 및 가족들의 많은 염서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염서 당첨자에게 드리는 선물 배송에 착오가 없도록 정확한 이름과 소속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 설레네요

마이레알트립 코너가 가장 흥미로웠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선뜻 떠나기는 어렵겠지만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설레고 좋았습니다.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중장년을 위한 홈 트레이닝 혹은 스트레칭을 소재로 하는 기사도 다뤄 주시면 좋겠네요. 이준교 님(이수화학 품질관리팀 노항택 주임 장모)



최신 트렌드의 경제 지식이 유용합니다

항상 스페셜 리포트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가을호에서도 최신 트렌드를 잘 반영한 경제 지식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주식, 금융 관련 주제도 한 번씩 기사화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장원 대리(주)이수 경영지원팀)



계절에 잘 어울리는 홈카페

홈카페 기사를 가장 재밌게 읽었어요. 막 내린 따뜻한 커피에 오렌지 슬라이스를 넣으니 향이 좋아지고, 프렌치 토스트에 바나나를 추가하니 풍미가 더해지는 느낌이에요. 요즘 같은 계절에 꼭 맞는 기사였다고 생각해요. 안혜지 과장(이수페타시스 해외영업팀)



예쁜 홈카페 기사가 좋았어요

캡슐 커피머신으로 커피를 내려먹는 소소한 재미로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보에 실린 홈카페 기사가 가장 재밌더라고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맛깔 나는 홈카페 푸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김소영 과장(이수화학 영업팀)

이수가족을 위한 아트 힐링 컬러링 테라피

컬러링 북은 선으로 그린 그림이나 도안을 모아 엮은 책으로 아이들은 물론 성인들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각자 원하는 색깔로 그림을 채워가노라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다스려 정서적인 안정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보 <ISU>는 마음의 안정과 힐링을 선사할 컬러링 코너를 연재합니다. 컬러링을 마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응모 방법

01



컬러링을 한다

02



인증샷을 찍는다

03



사진을 전송한다

보내실 곳 | 카카오톡 ID : creativekeym / 이메일 : hjkim1@isu.co.kr

2020년 가을호 당첨자 (※가나다순)

- 김소영 과장(이수화학 영업팀)
- 김혜만 사원((주)이수 DT팀)
- 안혜지 과장(이수페타시스 해외영업팀)
- 이춘교 님(이수화학 품질관리팀 노항택 주임 장모)
- 이장원 대리((주)이수 경영지원팀)
- 최은진 사원(이수페타시스 설계기술팀)

컬러링 응모작



김혜만 사원((주)이수 DT팀)



최은진 사원(이수페타시스 설계기술팀)

사보 ISU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솔한 생각과 마음이 담긴 글이나 사진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자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봄호 원고 마감은 3월 20일입니다.



